

한국축구가 2018러시아월드컵에 대비한 빈틈없는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김판곤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은 8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상대국 전담 분석코치를 선임하고 TSG(테크니컬스터디그룹)를 구성해 A대표팀의 월드컵 준비를 돕겠다는 복안을 설명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신태용호, 스포츠과학 활용해 전방위 지원할 것"

한국축구 '월드컵 프로젝트' 본격 가동

김판곤 위원장 "국격에 걸맞은 지원" 약속
스포츠사이언스 강화…분석코치 새로 선임
TSG 구성…대표팀 코치진과 정보 공유도

한국축구가 2018러시아월드컵 선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지구촌 최대 스포츠 제전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태용(48)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의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먼저 기술 분석을 총괄할 지도자를 대표팀 벤치에 장착한다. 여기에 TSG(테크니컬스터디그룹)를 구성해 빈틈없는 장외 지원에 나선다.

대한축구협회 김판곤(49) 초대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전반적인 역할과 비전,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방안 등 다양한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월드컵이 다가왔다. 아시아 최강국이라는 국격에 걸맞은 지원을 다하겠다. 스포츠사이언스를 강화해 선수 스카우트와 상대국 분석, 경기 평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대국 분석을 전담할 코치가 대표팀에 합류한다. 해외파 점검을 위해 최근 유럽 출장을 다녀온 신 감독이 먼저 요청한 사안으로 알려진다.

현재 대표팀에는 토니 그란데(71·스페인) 수석코치와 전경준(45), 김남일(41), 차두리(38), 김해운(45) 골키퍼(GK) 코치 이외에 하비에르 미냐노(51·스페인), 이재홍(35) 코치가 태극전사들의 피지컬 향상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2% 부족함을 느꼈다. 우리와 대회 조별리그에서 만날 스웨덴~독일~멕시코 등 상대국 분석을 전담하며 체계적으로 훈련에 접목시킬 전문 인원(지도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업무중복은 없다. "그간 대표팀은 그란데 코치가 준비한 자료를 미팅에서 공유하고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왔지만 향후에는 신임 분석코치가 이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그란데 코치는 정보수집의 부담을 덜고 본래의 수석코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분석코치만이 홀로 상대국 체크에 홀로 임하는 것은 아니다.

TSG가 동시에 활동한다. 기존 기술위원들의 역할이 현장분석 이후 대표팀 감독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활동영역을 크게 넓혀 대표팀 코칭스태프와 깊숙이 교감하고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와 공유한다.

월드컵 본선에서의 매끄러운 활동을 위한 일련의 리허설 계획도 수립됐다.

협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TSG를 구성, 유럽 원정으로 치러질 3월 A매치 시리즈부터 활동시킨다는 복안이다. 대표팀 소집기간이 아닐 때에도 TSG 멤버들은 K리그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등 주요 경기들을 살피며 꾸준히 업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활동한다. 새롭게 선임할 분석코치와 TSG는 대회기간, 우리 대표팀보다는 상대국 경기 현장에 주로 머물 것으로 보인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몰도바-자메이카-라트비아 신태용호 평가전 상대 확정

〈1~2월〉

신태용(48)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1~2월 평가전 상대가 확정됐다.

대표팀은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질 2주 간의 터키 안탈리아 전지훈련에서 몰도바(27일)~자메이카(30일 혹은 31일)~라트비아(2월 3일·이상 한국시간 오후 10시 킥오프)와 차례로 격돌한다.

2018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스웨덴~멕시코~독일과 같은 조에 편성된 우리로서는 최적의 스파링파트너다.

특히 자메이카는 기대이상의 소득이다. 본선 2차전 상대인 멕시코를 겨냥해 맞춤형 대비를 할 수 있다. 신 감독은 "최소 2회, 많게는 3경기를 치를 계획"이라며 실전 위주의 전지훈련을 희망해왔다.

당초 대한축구협회는 동계강화훈련에서 월드컵 1차전에서 격돌할 스웨덴에 대비한 북유럽 국가와의 친선경기를 계획하고, 상대를 물색해왔으나 대부분 국가들이 이미 일정을 잡아둔 상태였다. 더욱이 1월은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기간이 아닌 탓에 섭외의 폭도 넓지 않았다.

FIFA 랭킹 167위의 몰도바는 이번이 첫 대결이고, 54위 자메이카와는 역대전적에서 2승 1무로 한국이 앞선다. 132위 라트비아는 2010남아공월드컵을 준비하던 그해 1월 스페인 전지훈련에서 1차례 만나 1-0으로 이긴 바 있다.

한편, 이번 동계훈련에는 해외파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국내파 위주로 짜여질 엔트리(15일 발표)가 출전한다. 남장현 기자



러시아올림픽 출전을 노리는 권창훈(오른쪽)이 8일 벌어진 소속팀 디종FCO의 프랑스축구협회컵 64강전에 선발 출전해 88분을 활약했다. 팀은 연장혈투 끝에 스트라스부르에 3-2로 졌다. 사진캡쳐 | 디종FCO 홈페이지

디종 권창훈, 88분 활약 팀은 FA컵 32강행 실패

권창훈(24·디종FCO)이 풀타임에 가까운 88분을 뛰며 활약했지만 팀의 FA컵 32강 진출을 이끌지는 못했다.

권창훈은 8일(한국시간) 2017~2018 프랑스 축구협회컵(쿠프 드 프랑스) 64강전 스트라스부르전에 선발 출전해 중원을 누볐다.

32강행이 달린 만큼 초반부터 팽팽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0-0으로 전반을 마친 뒤 먼저 기세를 올린 팀은 스트라스부르였다. 후반 14분 리에나르가 선제골을 올리며 앞서갔다. 그러나 질로보지가 후반 20분 코너킥을 헤딩슛으로 연결해 1-1 동점을 만들었다.

승패는 연장에서 갈렸다. 스트라스부르가 연장 전반 2분과 3분 블라야치와 다 코스타의 연속 골로 승리에 한 발 다가갔다. 디종FCO는 연장 후반 13분 타바레스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다.

권창훈은 후반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맞았지만 불운과 상대 골키퍼의 선방이 겹치면서 공격포인트를 올리는 데 실패했다. 디종FCO는 FA컵 64강 탈락과 함께 최근 2연패를 기록했다. 고봉준 기자

스웨덴, 에스토니아와 평가전 1-1 무승부

한국의 2018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상대 스웨덴이 8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자예드 스포츠 시티에서 열린 에스토니아와 친선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스웨덴은 후반 13분 선제골을 내줬지만 34분 칼 홈베르그가 동점골을 터트렸다. 스웨덴은 자국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위주로 대표팀을 구성해 이번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소집되지 않았다. 스웨덴은 12일 덴마크와 2번째 평가전을 갖는다.

김판곤 위원장 "올림픽 사령탑, 11월 안에 선임"

〈감독선임위〉

"내년 3월 예선 고려…김봉길 감독 포함 공평한 기회"
지도자 인재 풀 구성…체계적 선임 시스템 구축 의지

한국축구 '도쿄올림픽 프로젝트'는 어떻게?

"다각도로 검토해 올해 11월 안으로 올림픽 사령탑을 선임하겠다."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첫 발을 내디딘 김판곤(49)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은 A대표팀과 U-23 대표팀 사령탑을 임명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전까지 기술위원장이 임면(任免) 전권을 가졌지만,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이 두 대표팀에 한해 사령탑 선정 등 모든 권한을 다 가진다.

축구계의 시선은 2020도쿄올림픽을 지휘할 사령탑 임명에 쏠려있다. 현재 U-23 대표팀을 이끄는 김봉길(52) 감독의 예정 임기는 8월 열릴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까지다. 이 대회가 끝나면 제로베이스에서 도쿄올림픽 사령탑을 새로 찾아야한다.

김판곤 신임 위원장은 "사실 올림픽 사령탑 선임은 첫 번째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나 올림픽 예선이 내년 3월에 열리는 만큼 올 11월 전에 임명을 마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엔 여러 복안이 담겨있다. 우선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 김봉길 감독을 포함해 현직 K리그 감독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선수 선발과 예선 준비를 위해 새 감독에게 최소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는 뜻도 숨어있다.

후보군 범위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후보의 현역시절 경력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어떤 팀을 지도했느냐 역시 중요하지 않다. 다만 지도자로서 어떻게 팀을 장악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연계 방침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한국축구는 2010광저우아시안게임과 2012런던올림픽을 홍명보(49) 체제로 한데 묶어 준비하면서 효과를 본 기억이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그런 방안 역시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1995년생 선수들에게는 선발 과정에서 피해가 갈 수 있다. 우리는 병역면제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시스템에 관한 개인적인 청사진도 밝혔다. 최근 홍콩에서 A대표팀 감독과 기술위원장을 수행하면서 터득한 경험이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밖에서 본 한국축구는 지도자 양성 시스템이 없었다. 인재 풀(Pool)을 구성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체계적인 사령탑 선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인사가 만사…힘 실린 감독선임위

감독 선임은 물론 대표팀 지원 역할까지
기술발전위는 유소년 선수 육성 포커스

지난해 한국축구의 개혁과제 중 하나는 기술위원회의 구조개혁이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을 분리· 운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위원회와 한국축구의 중장기 발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위원회를 따로 두자는 게 골자였다. 대표팀 감독이 물러나면 기술위원장도 함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가 강했다. 기술위원의 구성 또한 기능 중심으로 꾸려져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여론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축구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과 기술연구 기능을 담당할 기술발전위원회(이하 기술발전위)를 신설해 이임생 위원장에게 맡겼다. 지난달 말에는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이하 감독선임위)의 책임자로 김판곤 위원장을 선임했다.

감독선임위는 U-23 대표팀 및 국가대표팀 감독을 뽑는 기능이 주어졌고, U-20 대표팀 및 그 이하의 연령대별 감독은 기술발전위에서 담당한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감독선임위의 역할이 예상보다 커졌다. 단순히 감독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기능 이상으로 힘이 실렸다.

김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독선임위 기능에 대해 "대표팀 감독 선임 및 지원, 관리, 평가 등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기존의 기술위원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표팀 지원에 관한 역할을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감독선임위에는 4~5개의 소위원회가 운영된다. 감독 선임, TSG(테크니컬스터디그룹), 선수 스카우트, 스포츠사이언스 지원 등이 그 역할이다. 기존의 기술위원회 역할을 좀 더 세분화하면서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기술발전위는 U-20 대표팀 감독 선임과 함께 주로 유소년 육성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다. 특히 축구협회가 집중적으로 추진 중인 골든 에이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무게가 실린다. 골든 에이지 프로그램은 기술 습득이 가장 빠르게 이뤄지는 유소년 연령대의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발굴· 육성하는 게 목적이다. 유소년 육성 부분은 박지성이 본부장을 맡은 유스전략본부의 업무와 겹친다.

따라서 기술발전위는 연령별 대표팀 감독과 관련해서는 감독선임위와의 교감이 필요하고, 유소년정책 부분은 유스전략본부와 협의를 통해 전략을 짜고 실행에 옮기게 된다.

김 위원장은 기술발전위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 "큰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크게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겹친다면 긴밀히 조율하겠다. 20세 이하든, 23세 이하든 같은 철학을 갖고 감독을 뽑겠다"고 설명했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hg2@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